



자동차/타이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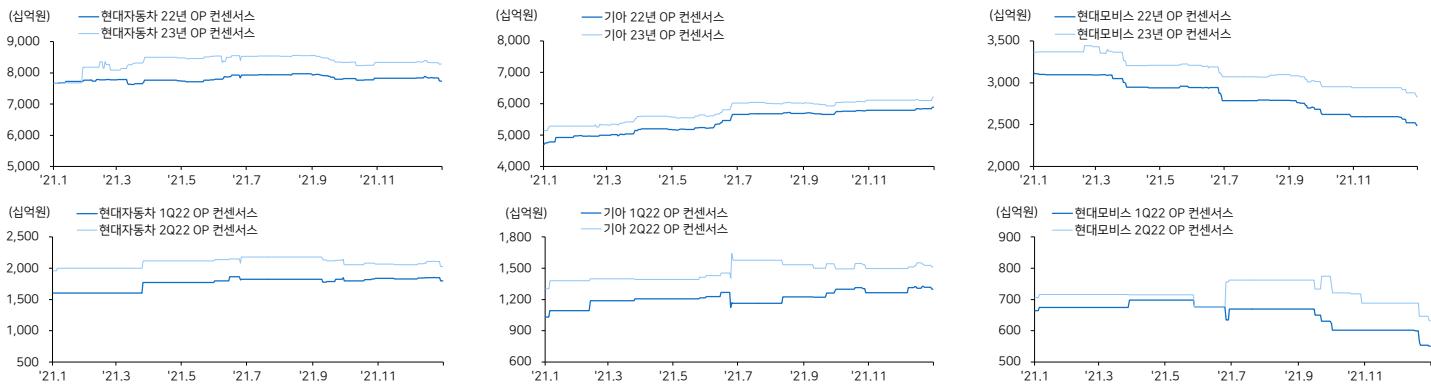
Analyst 김준성

02.6454-486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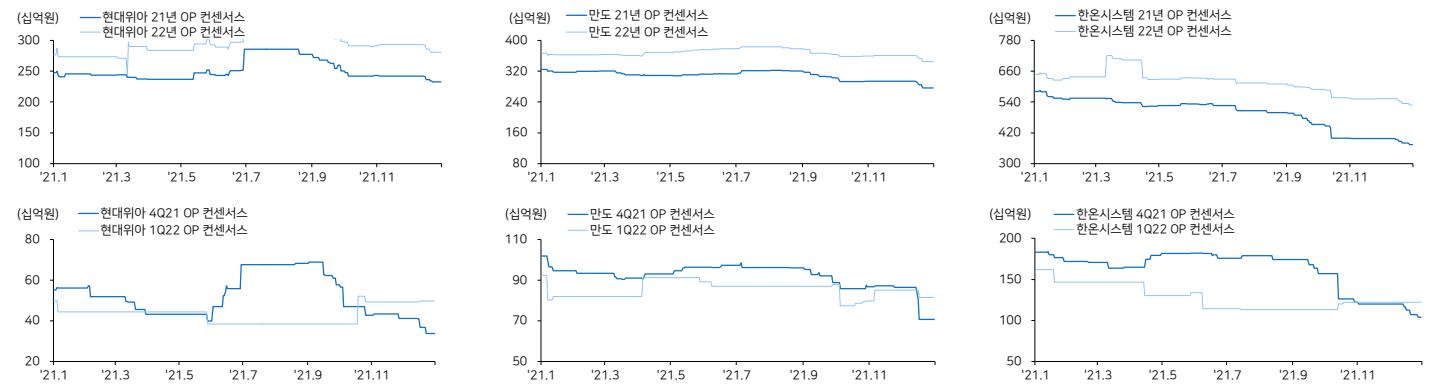
joonsung.kim@meritz.co.kr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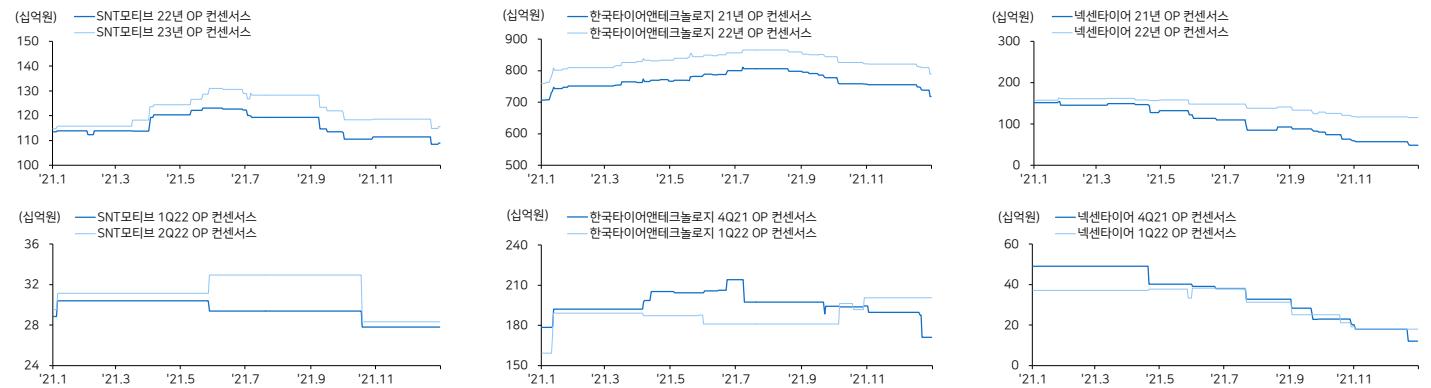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작년 세계 전기차 판매량 450만대…두배 이상 급증 (연합뉴스)

LMC오토모티브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yoy 두 배 이상 급증한 450만대를 기록, 글로벌 판매점유율은 6.3%를 차지함. 중국·첨무율이 12%로 가장 높았고 유럽은 10%, 미국은 3%대로 저조한 면이 있음.

<https://bit.ly/3r5DQ36>

“13년 만에 터재진출”… 현대차, 다음달 자동차 판매 재개 (조선비즈)

현대차가 일본 내 판매부진으로 철수한 지 13년 만에 ‘아이오닉5’ 등 전기차를 내세워 일본 시장에 2월 재진출, 전기차 ‘아이오닉5’와 SUV 수소차 ‘넥쏘’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친환경차 판매에 주력할 계획.

<https://bit.ly/3I1WsvL>

Musk's bets on Tesla: human-like robots and self-driving cars (Reuters)

일론 머스크는 올해와 내년 가장 중요한 제품은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SW 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것이라고 밝힘. 차량의 효용을 높일 수 있어 기존 자동차 판매에 주력할 계획.

<https://reut.rs/3r73DrL>

New EV owners resist gasoline cars, survey shows (Reuters)

JD Power는 전기차 구매자들이 첫 구매 시 충전인프라와 주행거리를 가장 우려하나, EV 구매 이후 다시 내연기관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꺼린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. Tesla Model 3가 소유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<https://reut.rs/3r32vFA>

후반도체 대란에 신차 출고까지 “1년+a”…내 차는 언제쯤?” (뉴스1)

기아와 현대차의 경우 인기 차종 출고까지 1년 이상의 대기 기간이 발생 상황이 지속되는 중.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전자 부품이 많지만 수요가 높고 있는 HEV와 EV를 중심으로 장기 대기가 발생하고 있음.

<https://bit.ly/3G1EX8p>

현대모비스, 美 젠다에 400만 달러 투자…차주행 고도화 나선다 (이데일리)

현대모비스가 레벨4 이상의 차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고성능 레이더 센서 기술 확보에 나선다. ‘이미징 레이더’ 개발을 위해 400만 달러를 미국 업체 젠다(Zendar)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진행.

<https://bit.ly/3rZzui>

Renault-Nissan to do more together in \$26 bln electric bet (Reuters)

로노 닛산 언합은 EV 플랫폼을 4개에서 5개로 늘리고, ‘30년까지 35대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, ‘26년까지 전 모델의 80%가 충전 플랫폼을 공유할 계획’을 발표함. 또한 ‘30년까지 220GWh 배터리 생산용량을 확보할 계획’.

<https://reut.rs/34bHD5d>

Sony welcomed to auto industry by Japan's old guard carmakers (Automotive News)

혼다 CEO는 ‘소니와 같은 EV 플레이어의 새로운 진입이 업계에 혜력을 줄 것’이라고 언급. 소니는 지난 CES2022에서 Sony Mobility, Inc 설립을 발표했으며, EV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제조를 외부업체에 맡길 것으로 예상됨.

<https://bit.ly/3u0uSGm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